

기독교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백 은 정[†]

유 영 권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기독교 남성동성애자가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삶의 적응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30~40세의 기독교 남성동성애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의 분석과정은 근거이론 접근방법의 절차를 따랐다.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최종적으로 45개의 개념과 2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2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인과적 조건으로는 동성애자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인식하게 되는 배경을 개념화하였다. 이에 따라 동성애를 인식한 후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중심현상으로 이해하고 이를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개념화하였다. 이에 대한 맥락으로는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곳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중심현상과 관련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재조건은 개인적 조건으로 동성애에 대한 이해, 관계적 조건으로서 가족의 인정, 의료인/상담사의 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도출하였다. 상호작용 전략은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과정을 개념화하였고, 김정희와 이장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분류에 따라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중심현상에 대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동성애에 대해 배타적인 종교를 믿으면서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적응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종단적으로 이해하여, 이 과정을 통해 나타난 삶의 적응 유형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요인들은 동성애자를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다. 특히 동성애자가 처음 동성애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받아들이고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상담의 차별적인 개입전략을 시사하는데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기독교 남성동성애자, 스트레스, 적응, 질적 연구, 근거이론

[†] 교신저자 : 백 은 정, (157-826) 서울시 강서구 발산2동 665-12번지 3층
전화 : 011-9961-7576 E-mail : arine100@hanmail.net

1996년 한국에이즈연맹의 ‘한국 동성애자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조사’에 따르면, ‘국내 동성애자 현황파악은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전제한 뒤 전국의 1백 50개 게이바 등 이들의 교제장소에 대한 실사 등을 기초로 동성애자의 수를 11만 명으로 추산했다. 1997년 이후 대학가에서도 서울대의 QIS, 연세대의 컴투게더, 고려대학교의 사람과 사람 등 수십 개의 동성애자들만의 모임이 생겼고, 인권단체나 종교모임, 인터넷 카페 등을 포함한 동성애 단체의 수가 1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종로나 이태원 등 전국의 여러 지역에 동성애자들의 정기적 모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동성애자들이 자신과 같은 성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들만의 집단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인권을 주장하고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학 및 정신의학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동성애는 죄가 되고, 병적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다수의 이성애자들(hetero sexuals)에 의해 무시되었고, 정신의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졌고, 그들의 동성애 성향이 알려지지 않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숨겨졌다(Collins, 1988). 그러나 킨제이(A. Kinsey)의 미국 내 동성애 현황에 대한 연구 이후 대중은 동성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중 매체에서 다루게 되었고, 이후에도 동성애의 인정여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그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성애자들만의 동성애자 인정여부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동

성애자들은 더욱 더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다는 점이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우울감과 자살사고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Fergusson, Horwood & Beauvais, 1999).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동성애자들은 고립감을 느끼거나 위축되기가 쉽고, 이는 그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동성애자의 심리적 적응은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과 관련이 있다(Ross, 1990).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갈등과정을 거치게 되고,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재적응 하게 된다.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은 자기혐오, 분노, 의심이라는 스트레스 반응들을 하게 된다(김은경, 2001). 지지를 받지 못하는 동성애자들은 자기회의, 우울, 불안 등을 느끼고 극한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Schneider, 1989). 따라서 동성애자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동성애자 공동체와 같이 자신을 지지해주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Berzon, 2001). 동성애자의 동성애자 공동체 참여(coming in)는 훨씬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과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커밍인으로 인해 동성애자는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동성애자 공동체와 같은 지지체계는 동성애자가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 형성과정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사람들은 남성 동성애자들 모두 에이즈 환자이며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어도 동성애적 성행위를 하

면 무조건 에이즈에 걸리게 되고, 에이즈는 동성애자들에 의해 초래된 질병이라고 인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윤가현, 1997). 동성애자가 항문성교를 할 경우 에이즈 감염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나 동성애 자체가 에이즈의 원인은 아니다.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사회 인식으로 동성애자들은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에이즈로 인한 간접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고민에다가 성행동과 관련하여 에이즈라는 질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사회가 동성애자를 안아주지 않는다는 문제로까지 스트레스가 증폭된다.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동성애자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 아래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Meyer, 1995). 이를 통해 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에는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에는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사회의 시각이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기독 동성애자에게는 교회의 입장이 적응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기독교 역시 단순하고 보편적인 원칙만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였다(Gerkin, 1999). 한국 에이즈연맹의 연구조사에 따라 한국의 동성애자들을 11만 명으로 추산할 때 그 중 몇 %만이 기독교인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의 기독 동성애자가 우리 주위에서 살아간다. 그들의 고민은 일반 동성애자들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동성애자인 경우 이들은 종교를 갖지 않은 동성애자들이 갖는 고통에다가 죄책감까지 느끼게 된다(White, 1994). 일반생활에서 동성애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대처하며 적응해 나가는 과정은 일반 동성애자나 기독 동성애자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하지

만 신앙영역을 고려한다면 기독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대처하며 적응해 나가는 방식은 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인 동성애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삶에 적응해 나가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동성애자의 실제 이야기를 접함으로써 그들의 적응 상 어려움과 대처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성애자들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이나 사회와 교회의 지원 정도여부를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 남성동성애자 8명이다. 이들의 연령분포는 32세에서 37세까지이다. 학력은 고졸부터 대졸까지였고, 8명 모두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 중 한 사람은 입양된 경우이고, 한 사람은 부몬가 이혼을 경험했으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가족사항이었다. 이들 중 3명은 부모사망, 직장 등의 이유로 혼자 살고 있으며 5명은 원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참여자 중 가족에게 드러내기(coming out)를 한 경우는 5명이었고 그 이후에도 가족과 함께 살거나 교류하면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신앙경력, 연 수와 면접 시 성적 지향성을 알았을 당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성적 지향성을 알기 전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두 명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되었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인식하게 된 시기는 다양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사례	나이	직업	동성애 인식시기	동성애 인정시기	드러내기 여부	신앙경력
1	35	회사원	20세	29세	유	2년
2	36	회사원	17세	27세	유	20년
3	34	시민단체	15세	20세	무	15년
4	32	회사원	9세	31세	유	5년
5	33	학생	18세	27세	무	8년
6	37	금융업	26세	31세	유	2년
7	34	자영업	8세	18세	유	8년
8	36	자영업	13세	15세	무	15년

하였고, 스스로 동성애자로 인정하기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12년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동성애자는 스스로를 인정하기까지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면접 참여자의 인적사항은 표1과 같다.

자료 수집방법과 절차

준비절차

근거이론은 연구자 자신이 연구하려는 상황에 들어가서 참여자의 문화와 행위 패턴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입장에서 참여자의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에 연구자는 국내에 소개된 동성애 관련 문헌과 서적, 학술지, 논문, 신문, 동성애자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 연구 질문과 관련된 충분한 배경정보를 갖게 되었다. 특히 동성애자가 쓴 서적과 이성애자가 쓴 서적의 내용들을 검토하며 연구자가 이성애자로서 동성애자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경험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재차 노력하였다. 또한 현재 동

성애자를 상담하는 상담사와의 면담을 갖기도 하였다. 이후 인터넷의 동성애 관련 사이트 중 몇 곳에 연구자의 소개와 연구자가 동성애를 이해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글을 실었다. 몇 차례 글을 싣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메일 보내기를 한달 정도 지난 후 몇 곳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중 몇 차례 접촉을 시도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맞는 동성애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이후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해 선행연구를 하면서 동성애 관련 문헌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실제적인 부분들을 파악하였다. 그 과정에 대한 본 연구의 엄격성은 Guba와 Lincoln이 제시한 4가지 기준 즉, 진실성, 적합성, 일관성, 중립성에 따라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면접질문지 구성

면접질문지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적응의 연관성에 바탕을 두고 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이론들(Ross, 1990; Meyer, 1995; Garnets & Kimmel, 1993; Monteflores, 1986, 윤가현, 1997)을 참고하여 면접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자

는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여 그 때마다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반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질문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동성애자가 자신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를 의심해 보는 단계, 동성애자가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자신을 동성애자로 인정하는 단계, 성적 지향성과 관련하여 있었던 삶의 경험, 가족과의 관계, 학교 내지는 직장 사회 생활에서의 관계, 특정 사람이나 사건이 성적 지향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지, 드러내기(coming out)전과 후의 변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질문마다 동성애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반드시 물었으며 이는 동성애자가 삶에 적응하는 과정의 순간순간 느낀 인식과 정서에 대한 통찰을 준다. 두 번째 부분은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평가, 대처 및 적응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동성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떠오르는지,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경험한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본인에게 영향을 준 면, 스트레스 해소 방법, 스트레스에 대한 전문가적 상담 경험 등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 면에서의 스트레스와 대처, 적응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의 의미, 하나님 상, 신앙과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 방법, 기독교 동성애자와의 접촉여부에 따른 영향, 목회자를 통한 해결 모색 경험 등으로 구성하였다.

면접

1차 면접은 2004년 2월 27일에서 3월 12일까지 진행하였다. 이후 2차 면접은 2004년 3월 30일에 실시하였고, 3차 면접에서 2명의 남성동성애자와 각각 2004년 5월 26일과 6월 12일에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시간과 장소는 참여자와의 협의

하에 편리한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였고 동의서를 통해 심층면접 전에 참여자의 권리와 보호를 설명해 주었다. 모든 면접 내용은 전사한 후 녹음테이프는 파괴하였다.

자료 분석방법과 절차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 중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Strauss, A. & Corbin, 2001). 첫째, 본 연구는 기독교 남성동성애자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삶에 적응하는가 하는 과정(process)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을 이해하고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여러 상호작용의 과정을 발견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 동성애자가 경험한 주변요소들과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심층면접을 통한 개개인의 인식과 느낌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는 질적 연구방법론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다. 셋째, 동성애자에 대한 직접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문헌을 통해서만 미리 중요한 변수 모두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가설검증보다 통찰, 발견,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귀납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현재 동성애자에 대한 연구에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연구한다. 사람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

황에 대한 대처방식과 적응과정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 남성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이 일반생활과 종교 활동에 따라 적극적인 부분과 소극적인 부분이 둘 다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였다. 따라서 김정희와 이장호(1985)의 구분에 따라,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노력이 외부로 투여되는 적극적 대처인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지리적 추구, 노력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등 내부로 투여되는 소극적 대처인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대처의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분석절차

자료 분석은 근거이론 방법의 분석절차를 거쳤다. 질적 연구의 방대한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건이나 행동들에 대한 단순묘사를 뛰어넘기 위해 자료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자료를 분석하고 개념화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과정으로 코딩화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를 분석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원자료화: 자료 분석방법은 수집된 녹음자료를 전사하여 이를 원자료로 사용하는 방식을 썼다. 자료는 면접한 내용 그대로 전사하였다. 한 사례 당 자료량은 A4 용지로 최소 12장에서 최대 26장이었다.

2단계 자료의 개념화 및 범주화: 원자료의 개념화를 위해 전사된 자료를 꼼꼼히 읽고 면접 당시의 참여자의 말의 어투를 통한 감정 등을 고려하여 문장 의미에 대한 개념의 명명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개방코딩(open coding)에 속하는 작업으로서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통하여 개념들을 분류, 비교, 유사한 현상끼리 묶은 후 관련된 개념들을 상위 범주로

묶어서 범주들의 속성과 차원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작업이다.

3단계 중심현상의 패러다임 형성: 분석된 범주들은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에 의해 재배치되었다. 이를 축코딩(axial coding)이라고 하는데,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일어나며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범주들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축코딩을 통해 구조와 과정을 통합시키는 분석과정이 현상과 연관된 다양한 조건, 작용/상호작용, 그리고 결과를 밝히게 되는 것이다.

4단계 사례간의 유형 및 공통점과 차이점 발견: 사례의 분석을 통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동안 범주의 속성과 차원 사이에 반복되는 관계들인 유형(pattern)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작업으로써 범주를 통합시키고 이론을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연구자와 자료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사례별 중심내용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핵심적 범주상의 내용 차이가 개별 사례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게 되는 것이다.

결 과

본 연구는 참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각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진 개념을 명명하고,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좀 더 추상화하여 범주화시키고, 이 범주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45개의 개념과 24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2개의 범주를 도출하

였는데 그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인과적 조건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진술에 근거해 6개의 개념들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연구의 참여자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참여자들이 동성애 성향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로 다양하였다. 참여자들은 처음부터 자신을 동성애자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또래집단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자신이 동성애 성향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성에게 관심이 없거나 동성애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이 계속될 때 자신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다. 몇몇 참여자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성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발달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후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성이 일반적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일반적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다를 경우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해야만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과 성 행동이 자신의 것과 다르므로, 여기서 비롯된 괴리감으로 인해 삶의 적응상태가 상당한 정도로 바뀌어 질 수 있다.

“고등학교 때 이성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여자를 좋아해야 하면서 애들이랑 얘기하는 감정들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일단 이해는 해야 되잖아요. 같이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고민을 좀 했는데 여자의 자리에 남자를 대입시키면 걔네들이 100% 이해

가 되더라고요.”(36세, 회사원, 이성에게 관심이 없음)

“그 때는 결혼할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이럴 거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바뀌거나 지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36, 회사원, 발달과정 중 일부라고 생각)

“매력을 느꼈으니까 좋아했지 아마 성적 매력이 없었다면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적 매력을 느끼고 그 친구하고 그러한 것도 상상은 했던 것 같아요.”(36세, 회사원,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낌)

“그러던 어느 날 셋이 술자리를 하고 헤어졌는데 내 친구하고 그 여자친구하고 길을 건너서 어두운 골목을 들어가는데 어깨동무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느낌. 가슴에 뭐가 딱 박힌다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을 받을 상황은 아닌데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렇게 까지 내가 아파할 일은 아닌데 저게.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쪽이 맞나보다. 소위 말하는 동성애자가 맞나보다”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고 그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36세, 회사원, 자신이 동성애자인가 의심함)

중심현상 :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사회적 맥락과 다른 자신의 모습 때

문에 갈등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우울과 외로움, 두려움, 죽고 싶음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동성애자들이 더욱 외부로 드러내지 못하고 사회와 단절되도록 만든다.

면접자료 분석 결과 나타난 중심현상은 동성애자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이 과정을 본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명명하였다. 중심현상에서 생성된 범주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 내용으로는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음, 회피하기 됨, 내색하지 못해서 답답함, 누가 알게 될까 봐 두려움, 타인의 반응에 예민해짐, 우울함, 외로움, 혼란스러움, 죽고 싶음, 자살 시도, 가족에게 숨김, 타인에게 숨김, 분노(세상에 대한 원망), 앞으로의 삶이 답답함이 있다.

“90년도인가 티비에서 추적60분, PD수첩처럼 그런 거에서 한국 동성애에 대해서 방송이 나간 적이 있어요. 내가 갔던 장소가 티비에 나왔는데 난 부인하고 싶었어요. ‘난 아니야.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방송에서 저렇게 안 좋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난 아니야’ 애써 부인했지만 내가 갔던 장소거든요.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건데 그 때 좀 많이 방황했죠.”(34, 시민단체,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음)

“답답.. 답답해요. 그것 이외에 뭐 있나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원망도 되고.”(34, 자영업, 내색하지 못해서 답답함)

“세상이 원망스럽죠. 하나님도 원망스럽죠. 만약에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했나.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했나.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면 왜 지금 교회 나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나. 지금 당장 ‘너는 교회 다닐 자격 없어’라고 꾸짖으시고 차라리 세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지. 그럼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지나 않지. 힘들어요. 우울하고 원망스러워요.(34, 시민단체, 세상에 대한 원망)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과정은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음에서 시작하여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모든 참여자들은 결혼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을 하였다. 일반적인 대인관계나 업무 면에서는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있었으며 주변에서 이성과의 결혼에 대해 압력을 받을 때 그리고 좋아하는 동성과 교제를 할 수 없을 때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혼란스럽고 우울하고 죽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자신의 지향성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숨기게 되고 타인의 반응에 예민해지게 된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동성애자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 외부에서 스트레스원을 찾았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받아들여기가 힘들다기보다는 사회가 동성애자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음..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 남들 앞에서 이런 얘기들(동성애)이 나왔을 때, 뭐 여자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들을 남자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예 회피하거나 회피하면 더 이상하게 보니까 더 오바 해서 내가 얘기를 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 순간을 모면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스트레스로 쌓여요.”(36세, 회사원, 누가 알게 될까봐 두려움)

“가족을 갖지 못할게 뻔하고, 사회로서는 저 새끼 호모라고 손가락질 받을 건 뻔하고, 직장 가면은 결혼 정년기에 가서는 결혼해야 되는데 못 할게 뻔하잖아요. 그런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35세, 회사원, 앞으로의 삶이 답답함)

맥락

중심현상에 대한 맥락으로는 사회와 교회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곳이 없다는 점이 범주화되었고, 그 개념으로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시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설교내용, 죄인 취급받음, 치료할 곳이 없음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 동성애자를 소외되도록 만들고 그럼으로써 더욱 어두운 곳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참여자들은 기독교인인 점에서 교회의 시선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설교 내용이나 죄인 취급받는 경우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처음 동성애자임을 인식하였을 때 동성애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내지 치료 여건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다른 동성애자들과의 만남에서 위안을 받고, 이런 이유로 사회나 교회와 대화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설교말씀을 목사님이 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말씀하시면서, 또 로마서 탐색 하는 얘기하시면서 비유로 AIDS를 연관시키면서 말씀하시면은 성도들은 까르르 까르르 웃으시

면서 박수를 치면서.. 참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죠. 나도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이 상황에서”(35세, 회사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설교내용)

“교회에서 동성애자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비난할 때.. 그럴 때 힘들죠. 답답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동성애자가 뭘 그리 나쁜 짓을 했다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지.”(34세, 자영업, 죄인 취급받음)

중재조건

중심현상과 관련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재조건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중재조건에 해당되는 요인들은 크게 네 가지였다. 개인적 조건으로서는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관계적 조건으로서는 가족의 인정, 의료인/상담사의 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중재조건들은 개입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시 여겨지는 요인들로서,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 동성애자의 삶의 대처 방식인 상호작용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민 하긴 했는데 그렇게 뭐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도서관에 동성애에 관한 기사나 뭐 그런 거 읽었는데 못 고친다고, 타고난 거라고 하길래.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 친구 좋아하는 마음 그 때의 느낌을 보면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33세, 학생, 동성애에 대한 이해)

“신경정신과를 갔어요. 첫 번째 갔는데 그 선생님 말씀이 여러 가지를 묻는데, 성 정체성을 인정하냐고 물어봤어요. ‘인정한다고.’ 그러면 정신병자 아니라고. 학생처럼 정체성을 확인했다면은 여기 올 필요 없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면서 저를 격려해 줬어요.”(35세, 회사원, 의료인/상담사의지지)

“내 편이죠. 위로의 하나님. 나를 이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라는 것을 믿어요.”(37세, 금융,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작용/상호작용 전략 :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동성애자의 경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대개 사건이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 도피와 같은 수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동성애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원인을 자기가 통제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동성애자의 경우 사회적 시각이라는 스트레스원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많고 현재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신앙을 통해 투사하는 대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인식하고 난 직후에는 치료적 노력을 행하지만,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인정한 다음에는 동성애자로서의 삶에 적응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문제중심적 대처

의 기간은 다른 대처방식보다 짧다. 문제중심적 대처로서 치료적 노력을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동성애의 원인을 생각해 보거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외부의 지지를 원하는 사회적 지지추구의 내용으로는 가족에게 드러내기를 함, 상담을 원함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동성애를 치료 불가능한 선천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어서 사회 즉 외부가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동성애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동성애자들과 만남을 갖고 동성애 공동체에 참여하는 등 심리적 안정감을 갖기 위한 정서완화적 노력을 하였다. 소망적 대처로는 앞으로 사회나 교회가 변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작용/상호작용 전략들이 그 결과로 기독 남성동성애자의 삶의 적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살 때 내가 어머니한테 버려짐으로써 생겨났던 후천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내가 내 유전자 속에 갖고 있는 성향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품을 좋아했느냐”(35, 회사원, 원인을 생각함)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것(동성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물론 힘드셨겠지만 그런 면은 이해를 하셨으니까. 저도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거짓말을 안 해도 되니까.”(36, 회사원, 가족에게 드러내기를 함)

“너는 내 것이라고 풀어주시는, 그런 지혜 주시는, 그래도 공감해 주신다고 저는 믿

고 있거든요. 저의 아버지로서의 신앙이죠. 저는 가족이 없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신앙이 믿어져요.”(35세, 회사원, 신앙을 갖게 됨)

“우리나라도 좀 많이 변화가 되어서 인권이 신장이 되고 생각도 좀 바뀌고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 잘 나가는 미국에서도 동성애 결혼은 위헌이다 어쩐다 하는데 그 법도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법이 왜 있나. 한 몇 세대 지나면은 그런 거 구별 않고 살아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태어난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일 세대 지났으면 편하게 남의 눈치 안 보면서 살아갈 날이 오지 않을까”(32세, 회사원, 사회가 언젠가 변하기를 원함).

결과 : 삶의 적응

기독교 남성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어떠한 모형으로 적응하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의 결과로 세상은 변하지 않음 그리고 교회의 반응에 관계없이 내 마음이 편하려고 신앙을 가짐, 세상은 변하지 않음 그러나 교회는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봐 주기를 원함, 세상과 교회가 변하여 자연스럽게 받아주길 원함의 세 가지가 대처방식 전략의 결과로 개념화되었다. 이를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삶의 적응 유형은 현실인정형, 현실타협형, 희망형으로 구분하였다. 현실인정형의 참여자들은 현실적으로 사회와 교회가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점을 인정한다. 그리고 자신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법은 현재 불편한 정서를 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을 갖는 이유 역시 단지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이다. 현실타협형의 참여자들은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교회는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용을 해주기를 원한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사회 속에서 좌절된 욕구를 교회를 통하여 풀기를 원한다. 희망형의 참여자들은 종교적 믿음으로 언젠가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한다. 이 유형을 보인 참여자들은 앞으로의 변화를 바란다.

“아니요. 없어요. 목사님 말을 내가 안 믿으니까. 사람들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힘들어하고 ‘남의 눈치를 저렇게 많이 볼까’ 좀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는데”(32, 회사원, 세상은 변하지 않음 그리고 교회의 반응에 관계없이 내 마음이 편하려고 믿음)

“동성애 이걸 인정해 달라. 당연히 하고 싶죠. 하지만 그 많은 것까지는 안 바래요. 한국교회에 내가 바라는 것은 저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새끼들, 나쁜 새끼들, 죽일 놈의 새끼들’ 계속 욕만 하면은 그 소수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34세, 시민단체, 세상은 변하지 않음 그러나 교회가 있는 그대로 봐주길 원함)

“세상이.. 좀 나아질까요? 외국에는 우리나라

표 2. 기독교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에 대한 범주들

패러다임	개념	하위범주	범주
인과적 조건	이성에게 관심이 없음 동성애에 대한 관심 발달과정 중 일부라고 생각 동성애에게 성적 매력을 느낌 자신이 동성애자인가 의심함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함	동성애자임을 알게 됨	동성애 인식
중심현상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음 회피하게 됨	현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색하지 못해서 답답함 누가 알게 될까봐 두려움 타인의 반응에 예민해짐	주위의 시선이 두려움	
	우울함 외로움 혼란스러움	우울함	
	죽고 싶음 자살시도	죽고 싶음	
	가족에게 숨김 타인에게 숨김	거부당함에 대한 두려움	
	분노(세상에 대한 원망) 앞으로의 삶이 답답함	원망스러움 미래에 대한 걱정	
매력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시선	사회의 부정적 인식	사회의 인식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설교내용 죄인 취급받음	교회의 부정적 인식	교회의 인식
	치료할 곳이 없음	실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음	치료상황의 부재
중재조건	동성애에 대한 이해	동성애에 대한 정보	동성애에 대한 이해
	가족의 인정	인간적 관계	지지적 관계
	의료인/상담사의 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	
작용 / 상호작용 전략	원인을 생각함 전문가를 찾아가	치료적 노력	문제중심적 대처
	가족에게 드러내기를 함 상담을 원함 교회의 지지를 원함	외부의 지지를 원함	사회적 지지추구
	이중적 삶	포기함	정서완화적 대처
	운명으로 받아들임 동성애자와의 만남 동성애자 공동체에 참여	동성애자와 유대감 형성	
	신앙을 갖게 됨 예배/기도함	신앙으로 극복하길 원함	
	하나님은 동성애자인 자신을 받아들여 줄 것임	긍정적으로 생각함	소망적 대처
교회가 언젠가는 변하기를 바람 사회가 언젠가는 변하기를 바람	희망을 걸어봄		
결과	세상은 변하지 않음 그리고 교회의 반응에 관계없이 내 마음이 편하려고 믿음	현실인정	삶의 적응
	세상은 변하지 않음 그러나 교회가 있는 그대로 봐주길 원함	현실타협	
	세상과 교회가 변하여 자연스럽게 받아주길 원함	희망	

라보다는 동성애에 대해서 수용적이라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37세, 금융, 세상과 교회가 변하여 자연스럽게 받아주길 원함)

축코딩

축코딩은 개방코딩의 개념들을 범주화하는 과정이다. 현상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완벽에 가까운 설명을 해 내기 위하여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계속 발달시키고, 범주를 속성과 차원에 따라

하위범주로 연결시키며,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들이 서로 교차되고 연결되는가를 보여준다. 패러다임의 범주화 과정은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 중재조건, 상호작용전략, 결과의 순서로 진행된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동성애를 인식한 이후에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사회와 교회의 부정적 인식과 동성애에 대한 치료 상황의 부재이다. 이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는 동성애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가족, 친구, 그 외의 사람에 의한 지지적 관계가



그림 1. 기독교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성애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일반적인 삶과 기독교 신앙에 적응한다. 상호작용 전략의 범주를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대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중심현상에 대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는 삶의 적응을 결과로 분석하였다. 기독교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대한페러다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선택코딩

선택코딩 작업에서는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문을 근거로 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관계를 정형화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기독교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은 일련의 유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연구의 참여자들이 동성애라는 특수성 때문에 느끼는 스트레스 내용들은 비슷하였으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서 적응과정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독교 남성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의 유형을 표 3과 같이 현실인정형, 현실타협형, 희망형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삶의 적응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현실인정형을 나타낸 참여자들은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이 사회적 지지추구, 정서완화적 대처였으며, 이들은 사회와 교

표 3. 기독교 남성동성애자의 삶의 적응 유형

	현실인정형	현실타협형	희망형
인과적 조건	동성애 인식	동성애 인식	동성애 인식
중심현상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맥락	사회의 인식 교회의 인식 치료상황의 부재	사회의 인식 교회의 인식 치료상황의 부재	사회의 인식 교회의 인식 치료상황의 부재
중재조건	동성애에 대한 이해 지지적 관계	동성애에 대한 이해 지지적 관계	동성애에 대한 이해 지지적 관계
작용/상호작용 전략	사회적 지지추구 정서완화적 대처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대처
결과	현실을 수용한 적응	사회보다 교회의 인정을 바라는 적응	사회와 교회의 인정을 바라는 적응
특징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여 현 상황에 적응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회와 달리 동성애를 받아들이주기를 원함	언젠가는 사회와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음

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현 상황에 적응하고 있었다. 현실타협형을 나타낸 참여자들은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대처를 하였고, 현 사회가 동성애에 부정적인 시선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자신들을 받아들여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희망형을 나타낸 참여자들은 사회적 지지추구,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대처를 하였고, 언젠가는 사회와 교회가 변화하여 동성애자를 받아들일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논 의

본 연구 결과로 나타난 주제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독교 남성동성애자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삶에 적응하는 과정(process)을 분석하고 그것을 유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여러 상호작용의 과정을 발견하기 위해서 Strauss와 Corbin(2001)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45개의 개념과 24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총 81개의 개념화가 이루어졌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성애자임을 인식하게 되는 배경을 인과적 조건으로 개념화하였고 이에 따르는 성적 지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중심현상으로 이해하였다. 중심현상에 대한 맥락으로는 사회와 교회의 부정적 인식, 치료 상황의 부재가 도출되었고, 중심현상과 관련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중재 조건은 개인적 조건과 관계적 조건으로 분류하였다. 상호작용 전략은 성적 지향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과정을

개념화하였고, 중심현상에 대한 상호작용의 결과로는 기독교인이면서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적응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성애자가 처음 동성애를 인식하는 시기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받아들이고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시기까지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개념들을 범주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남성동성애자의 삶의 적응을 상호작용 전략의 결과를 토대로 현실인정형, 현실타협형, 희망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는 기독교 남성동성애자가 주로 사용하는 대처방식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서 동성애자의 경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동성애자는 스트레스원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만 사회적 시각이라는 스트레스원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많았다. 특히 소망을 신앙을 통해 투사하는 대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성애에 대해 배타적인 종교 안에서 소망을 갖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동성애자의 스트레스와 적응과정은 기존의 동성애자 연구에 상응한다. 이는 Monteflores(1986)가 동성애자는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대처로 다수인들의 논리 속에서 대응해 가는 네 가지 전략 즉 동화(assimilation), 대결(confrontation), 거주지구화(gettoization), 전문화(specialization)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과 내용상 부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분석과정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개념들은 동성애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한다(Garnets & Kimmel, 1993). 특히 본 연구에서 동성애자가 처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인식하면서부터 동성애자임을 인정하게 되기까지를 구체화하여 분석한 결과 동성애자의 정체성 형성의 3단계 즉 동성애에게 매력을 느끼고 의심하는 단계, 동성애적 접

측으로 확인해 보는 단계,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의심하는 단계(윤가현, 1997)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참여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소수의 사례를 결과로 분석하였지만 실제 동성애자의 삶의 과정과 그에 따르는 문제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동성애자임을 인식하고서부터 인정하게 되는 시기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12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시기에 동성애자는 치료를 할 것인가 동성애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정체성을 고민하고, 자신을 동성애자로 인정하고서부터는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데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이는 그들이 겪는 과정이 어느 단계나에 따라 외부의 필요한 도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기독교 남성동성애자 중에서 연구자에게 드러내기를 할 수 있는 특정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잠정적으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성애자를 직접 참여시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재의 적응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다루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고적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전에 동성애자임을 인식하게 되면 서부터 현재 적응까지 동성애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인과론적 구조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번의 면접을 통한 연구의 자료는 개인의 진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말하는 참여자의 당시 느낌, 생각, 상황 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행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성애자의 삶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경 (2001). 동성애 관련 스트레스가 남성 동성애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 -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이장호 (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행동과학연구*, 17(1), 127-138.
- 윤가현 (1997) 동성애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안환균 (1999).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이 늘고 있다. *기독교사상*, 7(1), 32-46.
- Gerkin, Charles V. (1999). 목회적 돌봄의 개론. 유영권 역, 서울: 은성, 1999.
- Guba, E. & Lincoln, Y.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 Bass.
- Strauss, A. & Corbin, J. 질적연구: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2001.
- Berzon, B. (2001). Telling the family you are gay. In B. Berzon(Ed.) *Positively gay*. Berkeley: Celestial Arts.
- Collins, Gary R. (1988).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Dallas: Word Publishing.
- Fergusson, D. M., Horwood, L. J. & Beautrais, A. L. (1999). Is sexual orientation related to mental health problems and suicidality in young peop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 876-880.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Meyer, I. H. (1995). Minority stress and mental health in gay 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38-56.

Monteflores, C. de. (1986). Notes on the management of difference. In T. Stein & C. Cohen(Eds.)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psychotherapy with lesbian and gay men*. New York; Plenum..

Pearlin, L. I. & Schooler, C. (1987).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Ross, M. W. (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events and mental health in homosexual m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 4.

Schneider, M. (1989). Parental acceptance, comfortableness with sexual orientation, and self-esteem among gay and lesbian youths: A reflected appraisals model. *Journal o Homosexuality* 17. 111-130.

White, Mel. (1994). *Stranger at the Gate : To Be Gay and Christian in America*. New York: Simon and Schuster.

원 고 접 수 일 : 2004. 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0. 24
게 재 결 정 일 : 2004. 11. 11



Stresses and the Process of Adaptation of Christian Homosexual Males: An Approach Based on Grounded Theory

Eun-Jung Baek

Young-Gweon You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adaptation problems and stresses of the Christian homosexual males. For this thesis, in-depth interview was made for the 8 Christian homosexual males who are in the range of 30s and 40s. As a methodology of this thesis, the grounded theory designed by Strauss and Corbin was utili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45 concepts, 24 subcategories and 12 categories were induced. In terms of the causalities, the circumstances of recognizing as a homosexual by themselves have been conceptualized. Consequently, this study emphasized the stresses and the problems they have faced after admitting their sexual identity. Categorized this stress into "the stress of sexual orientation." Regarding this category, "negative perception of the society" and "no availability of professional helps" are also indicated. In prompting reciprocal role relating to the core theme, the personal conditions are as follows: understanding of homosexuality, acceptance by the families, supports from counselors and medical professionals and personal faith. The strategic approach to the reciprocal acts is determined by "how they cope" with the stress that arises in respect to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is classified into four styles of coping; problem oriented coping, social support pursuing, emotional relief coping, and hope oriented coping. Throughout this study, various styles of adaptation in Christian homosexual males in dealing with the stresses of their own sexual orientation were identified. Especially, classifying the process of homosexuals which covers from the point of recognizing their homosexuality for the first time to the point of accepting their true sexuality will enable counselors to be equipped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counseling with the Christian homosexual males

Key Words : Christian homosexual male, stress, adaptation,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